



국민 보건 의식 향상 주도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민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행보 속 신임 회장·부회장 선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91년 6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우리나라 성병관리현황과 그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성병의 현황 및 관리대책, 성병 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 위험집단(윤락여성)의 현황 및 성병 전담 진료기관의 역할과 그 활성화 방안, 국내 HIV 감염의 특성 등 다양한 연제와 사례가 발표되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1991년 7월 5일에는 임시 대의원 총회가 있었는데, 이날 신임 회장에 최진학 부회장이, 부회장에 임한중 이사가 선출됐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서병설 회장을 대신해 회장 직

무를 수행하게 된 최진학 회장은 △국내 특정 지역의 기생충 박멸사업 전개 △건강진단사업의 검사 분야 확충과 정도관리 철저 △임상 의료기관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야의 예방의학 사업 확충 △특수 업태 종사자들의 성원성 질환 검진과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실시 △홍보사업 강화 등을 통해 협회를 이끌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마스크 건강정보 신중하게 다뤄주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와 대구지부가 신축 청사로 이전해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을 무렵이었던 1991년 9월, 건협은 마스크에 의한 건강정보 전달이 보다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각종 언론사들에 권고했다. 1991년 5월부터 8월말까지 서울시지부 부속병원에 내원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신문과 방송, 잡지, 주위 사람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병원이나 약국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얻는 예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는 언론기본법 폐지로 언론기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전달될 위험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견되던 때였던 만큼 권고의 권고는 시의적절할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감소추세를 보인 전국 장내기생충 감염률

전국 장내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는 1971년부터 5년마다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86년 제4차 실태조사에 이어 제5차 조사는 1991년에 시행돼야 했다. 그러나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실태조사 자체를 시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자 기생충학계 관계자들이 청와대 및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결국 이듬해인 1992년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제5차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제5차 조사는 전국 194개 지역의 인구 5만 1,55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 4만 6,912명이 검사에 응하여 전체 수검률이 91.0%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총란 양성률이 3.8%로, 이는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1964년 창립과 함께 설정했던 '기생충 0%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가 바로 목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WHO의 요청으로 '제13차 국제열대의학회 및 말라리아 학술대회(1992.11.)'에 참석한 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실 채종일 교수팀은 "60년대 초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정부, 학계가 합심하여 전국적 차원의 회충 집단관리사업을 착실히 전개한 것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위생상태 개선 등에 힘입어 국내회충감염률이 현격히 감소했다"면서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성과"라고 회충 집단관리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최첨단 이동병원 시대를 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92년 10월 초부터 결혼을 앞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혼전건강진단'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고, 1993년에는 예방의학을 실천하는 건강검사 전문기관으로서 보건사회부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의학협회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금연운동을 펼쳐나갔다.

세계에이즈의 날이었던 1993년 12월 1일에는 대한에이즈협회와 에이즈 퇴치를 위한 한국 시민의 모임, 대한가족계획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보건협회 등과 함께 힐튼호텔에서 '성공적인 에이즈 예방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으며, 1994년 2월에는 특수 이동검진 차량을 도입·운행함으로써 병원에 가지 않고도 검사자가 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첨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

창립 30주년을 값지게 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지난 발자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64년 창립 이래 30년 동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 길로 매진해왔다고 할 수 있었다. 창립당시 90%이상을 상회하던 기생충감염률이 1971년 84.3%, 1981년 41.1%, 1992년 3.8%로 격감하여 국민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기생충 관리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다. '건강검진', '종합검사', '정기검사' 등의 용어를 새로 만들어가며 불과 10여 년 전에 시작했던 건강검사 실적도 1983년에는 77만여 건에 불과 했으나, 이듬해인 1984년에는 201만여 건으로 늘었고, 1993년에는 1,033만여 건으로 대폭 신장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수치로써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30주년을 맞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사업은 '자립'을 근거로 한 한국 민간단체의 건강증진운동으로서 최고라는 국제적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었다.